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게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몽골식약화 방지를 위한 은송의숲 만들기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성령강림절 후 제21주 】

전 주 반주자
 임재의 기원 거룩 거룩 거룩하신 주 다함께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경배의 찬송 14(통30). 주 우리 하나님 다함께

♠ 공동기도 다함께

오, 하나님. 우리는 주님과 하나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주님과 하나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자기를 열어놓으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열려 있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온 마음으로 그것을 위해 싸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서로가 서로를 거절하고 부인하는 곳에는 그 어떤 이해도 있을 수 없음을 깨닫도록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오, 하나님. 서로를 온 마음으로 남김없이 받아들일 때 우리는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있음이 주님의 있음 안에 있고 우리의 영이 주님의 영에 뿌리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채워주십시오. 다른 길을 걸어도 사랑으로 결속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사랑이 모든 것을 이김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토마스 머튼의 기도문)

♠ 참회의 침묵기도 다함께

♠ 위로의 말씀 요14:27 인도자

♠ 교 독 문 4. 시편5편 다함께

♠ 영 광 송 2. 찬양 성부 성자 성령 다함께

대표기도 I. 이승철 학생 II. 한상의 장로

응 답 송 찬양대

찬 양 94(102).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다함께

성경봉독 I. 눅4:18-21 최보미 학생

..... II. 욕2:11-13 문홍일 집사

찬 양 찬양대

말 씬 I. 예수의 노래 김재흥 목사

..... II. 사람은 혼자가 아니다 김기석 목사

거듭기도 다함께

- 찬 송 517. 가난한 자 돌봐주며 다함께
- ♠ 봉 헌 317(통353). 내 주 예수 주신 은혜(1,5) 다함께
- ♠ 봉헌 및 목회기도 인도자
- 공동체 소식 인도자
- ♠ 평화의 인사 다함께
- ♠ 보냄의 말씀 다함께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외로운 이들과 마음을 같이 하며 사십시오. 그들이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애쓰며 사십시오.

다 함 께 : 아멘. 내 코가 석자라는 핑계로 주위 사람들의 어려움을 살피지 못하고 살아온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픔을 깊이 공감하지 못한 채 선부른 위로로 더 큰 상처를 만들던 지난날의 모습도 반성합니다. 좀더 마음 쓰며 살겠습니다. 좀더 정성껏 사람을 대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 ♠ 찬 양 635. 주의 기도 다함께
- ♠ 축 복 담임목사

☀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선교회	청파교회 100년의 이야기 / 김재홍
	조항미 집사

다음 주 예 배 위 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이성운 전도사 김기석 목사	김서현 선생 임주빈 집사	손여진 학생 문홍일 집사

10월	영접위원	조병무 박창운 전총길 안정숙 허정윤 최영혜					
	헌금위원	방문성 강순배 (보조 : 다른 재무부원들)					

소속감의 기쁨과 고통

나는 수년간의 연구를 통해 성인의 성격과 개성이 유년시절의 경험을 통해 형성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어린이들은 자신에 대한 부모의 사랑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 부모가 자신들을 지배하려 하고 소유물로 여기려 할 때, 폭행과 학대를 일삼을 때, 우울함과 분노와 반감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소속감(*belonging*)이라는 것을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때로는 위험하기까지 한 어떤 것으로 여기게 된다.

이런 순간들은 비수가 되어 어린이의 가슴에 큰 상처를 남기고 마음에 혼돈과 고통을 가져다준다. 어린이는 너무 약하고 힘이 없으며, 자기 방어 능력도 없고,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고 자신의 분노를 표현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린이는 이것을 감출 수밖에 없다. 자신의 비밀의 방 깊숙한 곳으로 밀어 넣는다. 그렇게 우리 안에 있는 무의식, 그늘, 내적인 어둠은 자라간다. 이 그늘진 영역은 소속감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지배하고 통제하게 된다.

만일 어린이가 약함과 소속감을 사랑의 분위기 속에서 자기 자신이 되도록 만들어 주는 힘으로 경험하지 못한 채 비참한 것으로, 또는 누군가에게 이용당할 수 있는 것으로만 여기게 된다면 그들은 진정한 사랑을 하기 어려워진다. 사랑은 단지 자신의 자유와 내적인 평안을 파괴하는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 사르트르는 그런 의미로 사랑은 단지 다른 이의 자유를 먹여 치우는 것이라 이야기한 것이다. 친교를 나누거나 서로를 신뢰한다는 것은 결코 인간다운 행동이 아니다. 그것은 자신의 주체성 부족과 나약함을 드러내 보이는 것일 뿐이며 자신의 삶에 대해 책임질 능력이 부족한 것일 뿐이다. 인간으로 산다는 것은 강해진다는 것이요, 스스로를 방어하는 것이요, 약육강식의 정글에서 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사랑, 그것은 깨지기 쉬운 나약한 것이며 소속감은 관심 밖의 것이다.

위에서 말한 것 같이 고통스러운 경험들은 어린이가 청년이 될 때 정체성 형성에 큰 영향을 끼치며, 어느 순간 자신을 부모와 별개의 존재로 인식하게 만든다. 그러나 그런 경험들로 인해 어린이는 자기 자신이 되기를,

그리고 자신의 고통을 표현하기를 두려워하게 되어 순응적인 존재가 되기도 한다. 어린 시절의 아름다운 경험과 고통스러운 경험은 어린이의 발달과 다른 이와 관계를 맺는 방식과 성격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어딘가에 소속된다는 것은 가족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일 부모가 아이들이 자유로운 존재가 되도록 길을 터주고 성장을 돕는다면, 아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자기가 결정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준다면, 타자를 수용하고 존중하며 열린 자세로 대해나간다면, 다른 이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가르쳐 줄 수 있다면, 그런 아이들은 이후에 소속감에 대해 다르게 생각하며 좀더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깊은 신뢰와 친교를 맛보았기에 타자에 대해 다른 이들보다 더욱 열린 자세로 살아갈 것이다.

친교라는 것은 사랑을 서로 주고받는 것이다. 부모와 자녀, 환자와 간호사, 교사와 학생, 남편과 아내, 친구와 친구, 사람과 사람을 엮어주는 것은 바로 신뢰라는 끈이다. 다른 사람의 손 안에서 안전하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게 될 때 신뢰가 생긴다. 그제야 비로소 깨지기 쉬운 우리 자신을 다른 이에게 열어준다. 친교는 정적인 것이 아니다. 이것은 끊임 없이 발전하는 것이다. 신뢰는 성장과 성숙을 가져오기도 하고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상처와 우울함을 가져오기도 한다. 상대방이 자신을 소유하려 하거나 짓밟지 않으며 자신의 재능을 귀히 여기고 자신의 성숙과 자유를 돕는다고 느끼는 것이 참된 신뢰다. 그러한 신뢰는 우리 안에 있는 더 큰 신뢰를 불러일으킨다.

약한 사람이 있다. 그런데 그가 누군가와 함께 진정한 신뢰의 관계 속에 있다면, 그는 자신의 약함을 비난당해야 하는 것이나 부정적인 것으로 여기지 않을 것이다. 그는 상대방이 자신의 진가를 알아준다는 것에서 자신의 기댈 곳을 찾은 것이다. 이처럼 소속감은 삶을 제한하는 것만이 아니라 삶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공간이 될 수 있다. 그 공간은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곳이다. 소속감은 가족, 문화, 언어, 남성성과 여성성, 신체를 사용하는 방식, 대화하는 방식, 다른 이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방식 등 많은 것에 영향을 미친다. 소속감의 핵심은 다른 이를 통해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확인하게 된다는 것이다. 소속감을 통해 한 개인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인간적으로 발전하게 된다.

- 장 바니에, 『인간 되기』 중에서

은행나무 부부

반철환

십 리를 사이에 둔 저 은행나무 부부는 금슬이 좋다
삼백년 동안 허운 옷자락 한 번 만져보지 못했지만
해마다 두 섬 자식이 열렸다

언제부턴가 까치가 지은 삭정이 우체통 하나씩 가슴에 품으니
가을마다 발치께 쏟아놓는 노란 엽서가 수천 통
편지를 훑쳐 읽던 풋감이 발그레 홍시가 되는 것도 이때다

그러나 모를 일이다
삼백 년 동안 내달려온 신랑의 엄지발가락이 오늘쯤
신부의 종아리에 닿았는지도

바람의 매파가 유명해진 건 이들 때문이라 전한다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이성운 손성현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한정애		
원로장로 : 전영규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장로 : 조병무 한완식 윤석철 방문성 한상의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김아영	
차량 및 교회 관리 : 오진훈	도서관장 : 박혜경	

◇ 헌금영수기 ◇

십일조헌금:

윤정덕 구성실 강인식 김정숙 김준우 우순덕 백묘현 손성현 안정숙
 윤미경 윤수진 임주빈 최현옥 박시내 최종훈 김금하 이광용 형인순
 무명2

월정헌금:

권혁순 박혜경 김용태 박정숙 안길상 이형숙 이성범 이소순 이인웅
 오송경 이재구 황선희 조순덕 김문주 이광섭 박상규 이수정 배재경
 이증자 박석희 조항미 박은정 한정애 최재욱 이수정 무명1

감사헌금:

강순배 한훈식 권채영 전 용 오복순 문복순 박병구 김정애 최종훈
 김금하 안정숙 무명5

녹색꿈 헌금:

최경미 장원호 박성희 허호범 박성실 한완식 임정자

속명	인도자	속장	모인곳	다음장소
예루살렘	장혜숙	박성실	심	박성실
베들레헴	노순옥	정경례		김미순
안디옥	임정자	임정자		이소순
가나안	문영혜	이명희		김명순
갈릴리	안정숙	진정숙		박옥순
베다니	박홍재	곽권희		김순복
시온	박효선	허정윤		홍복선
엠마오	최숙화	권미정		이기분
에베소	이순정	김금순		강순배
빌립보	이형숙	권미숙		구성실
가버나움	안홍숙	오현정		오현정
나사렛	정영선	백혜숙		김시영
갈라디아	유경순	김명희		유경순
고린도	이영란	이영란		이증자
다메섹	박혜경	최영혜	정현선	

■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1. **선교회** : 오늘 오후 집회는 선교회별 모임입니다.
2. **원로 나들이** : 21일(목) 아름다운 원로모임에서 단양으로 나들이를 갑니다. 오전 8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3. **교우의 새 책** : 정수복 교우의 『빠리의 장소들』과 이유진 교우의 『태양과 바람을 경작하다』라는 새 책이 나왔습니다.
4. **신앙실천** : 아침에 10분, 저녁에 10분 이상의 시간을 마련하여 기도하십시오.

* 식당 봉사 : 안디옥 속 (다음 주 : 안디옥 속)

* 설거지 봉사 : 최경미 이수정 최재욱 (다음 주 : 방문성 권혁신 정희은)

* 새교우 : 강성식 (5남)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 년 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